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빛 3
1978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론 테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교문

매리온 디 헨스

로버트 디 헤일즈

던 엘 라슨

리차드 지 스코트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어린 아이의 구원-----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3

교회 관리인의 곤경----- 로라 제이 어세이----- 11

아버지의 집----- 14

학습이란 씨앗과 같아서----- 데오 이 맥킨----- 16

간접 경험의 가치----- 필립 시 스미스----- 18

지역 지도자 메시지----- 한인상 부산 선교부장----- 19

지역 소식----- 20

세상에서 제일가는 부자----- 21

볼 수 있는 손가락----- 일레인 시 스미스----- 22

예수님은 내 친구----- 브라이언 우드퍼드----- 24

심심풀이----- 28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브렌다 헌트----- 32

질의응답----- 아데스 지 캡----- 38

초여름의 꽃들----- 잭 와이 런드----- 40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일들

여러분의 마음은 알고있다해롤드 비 리 대관장----- 46

칭찬할만한 일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표 3

통 권 : 제152호, 제14권 제3호
 동 목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8년 3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톨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희인쇄주식회사 유 전 수

1978년
 제14권 제3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권 소유

다. 부활하시어 영화롭게 된 몸을 지니신 예수님은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시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아무도 행하지 아니하였던 방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왔던지라, 아무도 이를 감당치 못하였고...”(니삼 17: 17)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싸매, 어린 아이들도 불로 둘러싸였으며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니삼 17: 23-24)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어린 아이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의 구원에 관하여 흔히 주어지는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을 적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이는 어떤 사람이며 어린 아이는 누구인가?

아이는 새로 태어난 육신을 가진 성인의 영을 말합니다. 그는 영의 자녀를 두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장하며 성숙하게 될 수 있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들은 필멸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전에 무한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출생 전에도 그리고 죽을 때에도 성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마리아에 의해 양육되기 이전에 친히 영광과 승영의 상태에 이르셨습니다.

필멸의 몸을 입는 탄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의식이 있는 성숙한 지적인 존재가 전세에서 필멸의 상태인 현세로 오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으로 존재하던

오랜 세월 동안 얻었거나 개발한 성품과 재능을 불멸의 상태에서 필멸의 상태인 지상 생활로 가져 오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또한 필멸의 육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하나님의 영원한 영이 거하도록 창조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으로 생명의 호흡을 내릴 때 우리는 완전히 필멸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지상에 보내졌는가?

우리는 육체, 곧 살과 피로 된 육체를 얻기 위해 지상에 보내졌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다시 불사불멸의 몸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로서 지냈던 무죄하고 순수한 상태에 다시 놓일 수 있도록 생활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으로 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책임을 질 연령에 이른 자들은 발전하고 시험받고 시련을 겪기 위해 지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죄란?

이것은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어린이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짓 교리입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신앙개조, 제2조)

어린 아이는 원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상태에 놓여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기독교의 교리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원리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속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은 태초에 무죄하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영들이 전세에서 처음에는 순수하고 무죄한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에서 구속하여 주셨으므로 인간은 또다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게 되었느니라.”(교성 93 : 38) 이 말은 모든 어린 아이는 속죄 때문에 현세의 시험 기간의 처음에는 순수하고 무죄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계시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이 시조의 죄를 대속하였고 이로써 양친의 죄는 자녀의 머리로 돌아올 수 없도다. 자녀는 창세 전부터 온전함이니라는 말이 백성 가운데 널리 퍼졌느니라.”(모세서 6 : 54)

어린 아이는 죄 안에서 잉태되는가 ?

현대 기독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원죄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죄 안에서 잉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순한 흠을 지닌 채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전에 “어린 아이는 죄 안에서 잉태된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상의 교리에서 언급되고 있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전상의 의미는 그들이 죄가 많은 세상에서 태어나므로 “저들이 자라기 시작하자 죄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잉태되나니, 저들이 선의 소중함을 느끼고 알도록 쓴 것을 맛보게”(모세서 6 : 55)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 침례에 관해 어떻게 말하는가 ?

예언자 물몬이 유아 침례에 대해 심히 비난한 것과 같이 몇 가지 거짓 교리는 단호하고 신랄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또한 계속 비난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영감받은 기록자인 그가 주님께 어린 아이의 침례에 관하여 여쭙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시며 주가 되시며 구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함이라. 성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죄가 어린 아이들을 사로잡지 못하는지라 아담으로 인한 저주가 나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에게서 씻겨졌고...”

따라서 물몬은 성신의 권세로써 말하며 어린 아이들을 침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조롱하는 것”이며, 어린 아이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자들이며, 어린 아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순결하신 사랑(자비)을 부인하는 자의 간악함이 크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헛되다 하는 자이며, 이 거짓 교리를 믿는 자들은 “죄의 사슬에 얽매어 있으며”, 그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쫓겨 나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며 회개하고 침례받은 자들은 “그 자녀들과 더불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어린 아이는 자동적으로 해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는가 ?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물몬은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이에 대해 말하였으며, 그것은 전반적인 구원의 계획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구속의 능력이 적용되는 범위는 무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요셉 스미스가 본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는 책임을 질 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는 모든 어린 아이가 하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음을 보았느니라.”(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 10절)

때로는 이것이 모든 민족의 어린 아이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시에도 언급되어 있는 모든 어린 아이라는 말은 사실상 모든 어린 아이를

뜻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종이나 족속이나 방언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 사실 그대로 어린 아이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으며,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말해서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어린 아이가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음을 보았느니라 하고 한 예언자의 말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계시는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적용됩니다. 이 세상에 오는 영은 모두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의 왕국에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인간의 모든 영은 태초부터 무죄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또한한 자들은 모두 쫓겨날 받았읍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모두 복음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구원의 교리, 2:224)

어떻게 그들은 구원받으며, 왜 그들은 구원 받는가?

그들은 속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존재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옵니다. 현세에서 그들에게는 죄나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에게로 순수한 존재로서 다시 돌아옵니다.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와 침례와 순종을 통하여 순수하게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구속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 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는 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구속을 받았나니”(교경 29: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가?

영생이란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단계에

서의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승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삶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린 아이가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된 성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 곧 영생의 은사를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당면하게 됩니다.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면 그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영생의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두 말은 동의어로서 똑같은 것을 뜻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영광, 권능, 권위, 권세, 그리고 지배력에 있으며 이 외의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신앙 강화, 63-67 페이지) 우리는 이 구원을 승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표준 경전에 나오는 모든 성구에는 승영은 구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의 모든 경전 가운데 구원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는 세 개의 성구만은 승영이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빈아다이는 “어린 아이들이 또한 영생을 얻으리라.”(모 15:25)고 말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면전에서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그들은 그곳에서 해의 왕국에 예비된 그 빛과 영광과 예지의 충만함을 얻을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00페이지)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말했습니다. “주님은 승영에 관계되는 모든 인봉의 축복을 이 어린 아이들에게 부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기 전부터 성숙한 영의 상태로 있었읍니다. 어린 아이의 몸은 부활한 이후에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성장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 전에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에게서 모든 축복을 앗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다음에 올 세상에서의 승영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공평한 처사입니다...어린 시절에 죽은 어린이에게는 어떠한 축복도 거부되지 않습니다. 부활 후에 이들이 성숙한 영으로 성장하게 될 때, 이들은 이 지상에 살았더라면 받게 되었을 모든 축복을 받게 됩니다.”(구원의 교리, 2 : 223)

어린 아이는 결혼하여 가족 단위로 생활하게 되는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전혀 의심스러운 점이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 곧 영생인 승영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결혼하여 가족 단위로 생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알기 쉬운 말로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입니다. (구원의 교리, 2 : 218-225 참조)

왜 어떤 어린 아이들은 죽는데 다른 어린 아이들은 살아 있는가?

죽는 어린 아이들의 생활은 지상에서 그대로 살아 있는 어린 아이들의 생활보다 더 나은가?

우리는 영의 자녀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시험과 시련을 내려 주십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우리가 주님은 어릴 때 죽을 자와 지상에 남아 온갖 시험을 받게 될 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계셔서 미리 준비하신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을 나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말과 일치합니다. “주님은 많은 자들을 어릴 때에 베풀어주시어 그들이 인간의 시기심과 이 현세의 슬픔과 악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들은 너무나 순

수하고 사랑스러워 지상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6-97페이지) 모든 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있어서 책임을 질 연령에 이른 자들에게 인간이 겪어야 하는 시험과 시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을 극복하고 어린 아이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흠없는 순수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필멸의 몸을 입고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 얼마나



자녀를 잃은 어머니에게
 요셉 스미스는
 “그녀는 부활한 후에
 그의 영이 완전히 성장한
 모습이 될 때까지
 그의 아들을 키우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는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세상에서 그를 보았읍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는 우리에게 그의 율법을 가르치셨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대해 배웠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주로서 택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를 따를 것을 선택했읍니다. 우리는 복음의 계획을 이해하고 알았으며 중대한 구원의 계획의 일부로 필멸의 율체를 얻는 특권을 누리게 됨을 알고는 기뻐 소리쳤읍니다. 순수하고 흠없는 상태로 창조주에게 돌아가는 어린 아이들, 곧 사실상 성인인 이들은 한때 자기들이 소유하였던 복음에 관한 지식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시험을 받게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낙원에서나 복천년 동안이나 복천년 후에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해의 영광의 율체를 입고 무덤에서 이미 나온 자요 구원을 보장받은 자인 부활한 사람들이 왜 시험을 받겠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묶여 있는 복천년 동안 태어날 수 많은 사람들은 “죄 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를”(교성 45 : 58)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험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나, 영의 세계에서나, 부활 후에나, 어느 곳에서도 어린 아이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질 만한 연령에 이르지 않은 채 죽은 어린 아이는 유혹받지 않습니다.”(구원의 교리, 2 : 225) 이 말은 조셉 필립 스미스 대관장이 강조한 것입니다.

책임을 질 연령이란?

생애 동안 일정한 때에 이르기 전에는 어린 아이는 완전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 점차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과정이지, 특정한 햇수나 날짜나 시간이 흘러

감으로써 달성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현대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죄 지을 수 없으며 저들이 성장하여 내 앞에서 책임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어린 아이를 유혹하는 능력을 사탄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교성 29 : 47) 그러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되며 정상적으로 성장한 자들이 생활하면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여덟 살이 되는 때이며, 칠펜받아야 할 연령입니다. (교성 68 : 27)

이러한 책임에 대한 원리는 왜곡되고 곱해되었으며, 심지어는 몇 번이나 잃어버려 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물몬은 주님께 유아 칠펜에 대해 알기 위해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모로 8장 참조)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은 내가 가르침에서 멀어졌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나의 의식을 지키지 않았도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계명으로 준 기쁨 부음과 장사 곧 칠펜 의식을 지키지 않는도다

“오히려 그들은 계명에서 돌아서서 어린 아이를 씻기는 의식을 행하고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는도다”(창 17 : 4-6, 영감역)

유아 칠펜은 매우 일찍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들은 속죄를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까닭은 기록된 바와 같이 고대 백성들은 “아벨의 의로운 피가 죄를 위하여 뿌려졌다고 말하였으며 그 때문에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창 17 : 7, 영감역)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할례의 언약을 세우리니 이것은 나와 너와 네 세대 후손 사이에 세워진 내 언약이 되리라 그것은 여덟 살이 되기 전에는 어린 아이들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영원

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창 17: 11, 영감역)

정신 장애자에 관하여

정신 장애자도 어린 아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질 연령에 결코 이르지 못하며 어린 아이처럼 간주됩니다. 신체적 장애 때문이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코 성숙할 수 없다면 결코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처벌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으며 모든 어린 아이가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에 따라 영원한 것을 상속받고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태초부터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시고 책임을 질 연령에 이를 때까지는 어린 아이를 유혹하는 능력을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후, 주님은 같은 원리가 정신 장애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식을 가진 자면 누구에게든지 내가 회개하라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기록된 대로 행할 뿐이니라.”(교성 29: 49-50)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린 아이들이 부활하게 되는가?

어린 아이들은 해의 왕국을 상속받게 되므로 첫째 부활에 나아오게 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일찍 죽은 유아는 부활시에 어린이로 나타난다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잃은 어머니를 가리켜 그녀는 부활한 후에 그 영이 완전히 성장한 모습이 될 때까지 그의 아들을 키우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겠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후에는 회복과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에 많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러한 원칙이

나타내진 것을 감사합니다.”(복음 교리 II, 205페이지)

어린 아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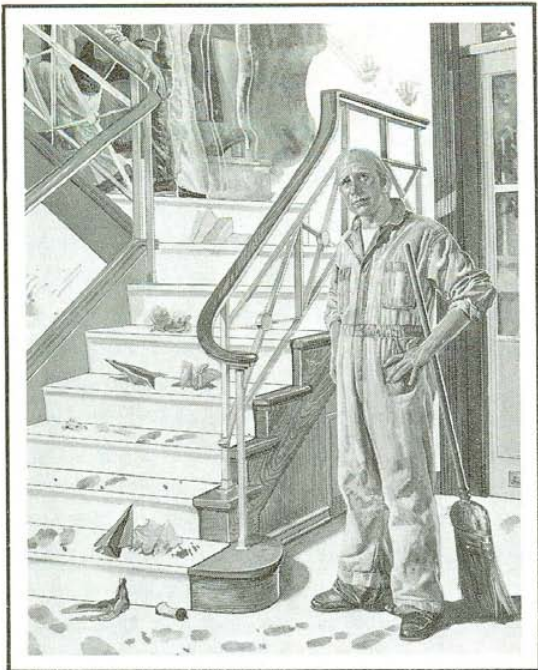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 3) 우리의 자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빛과 진리가운데 그들을 키워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시온의 부모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을 잘 키우고 돌볼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배나민 왕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사실을 잘 요약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를 험뵈고 굶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죄의 주인이요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신 악령인 악마를 섬기지 아니하리니, 그는 모든 의의 적이라,

“너희는 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기를 가르치며”(모 4: 14-15, 교성 68: 25-28 참조)

그러면 어린 아이의 구원에 관계되는 이 훌륭한 교리는 무엇인가?

진실로 이것은 가장 아름답고 영혼의 가장 큰 소망을 충족시켜 주는 복음 교리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신성한 사명을 나타내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당시, 무심한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처벌 주는 일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유아들의 해골로 깔려 있다고 기독교의 광적인 전도자들이 설교단에서 크게 떠들어 대고 있었습니다. 물론경과 말일의 계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요셉 스미스의 말씀은 어린 아이들은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순수한 진리로서 새로운 바람처럼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무죄하고 순수한 어린 아이의 영혼에 관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회 관리인의 곤경

로라 제이 어세이

우리는 “해야 할 것인가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밤늦도록 의논하였습니다. 감독이 신권회 모임에서 스테이크 본부의 건물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광고하였습니다. 나의 남편 에이스 형제는 모임이 끝난 후 그것에 대해 자세히 물어 보았으며 나와 상의한 다음 이튿날 저녁에 세 명의 감독과 만났습니다.

그는 그러한 일을 좋아하게 될까? 그것은 세 개의 와드와 하나의 스테이크가 사용하는 큰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더라도 일거리는 산적해 있을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나도 피아노나 울건의 먼지를 털어 낸다든지 창문을 닦는 다든지 하는 일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까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하러 집에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절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연관공 일과는 달리 더 이상 햇빛, 비, 바람, 눈 따위에 시달리며 오랫동안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창고 관리인처럼 밤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59세가 되는 그로서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월요일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 직장을 수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에이스 형제는 고용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요일에 우리는 교회로 가서 처음으로 건물을 살펴보았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홀 양끝에 있는 계단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폭이 4피트였고 다른 하나는 폭이 6피트였으며 각각 17계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를 한 지 오래 되었으며 발자국과 오물 등으로 얼룩이 여기저기 나 있었고 때가 잔뜩 끼여 있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우리는 비눗물과 소제기와 칫솔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대리석과 닳은 검은 줄무늬가 있는 연한 크림색의 비닐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에이스 형제는 수선하거나 바꾸어야 할 것들은 언제나 찾아 내었습니다. 그는 바깥문의 모든 자물쇠를 고쳤고 화장실문과 활동실문의 빗장을 같이 끼웠습니다. 그는 자매 화장실의 샤워를 고쳤고 마루 한 가운데 떨어져 있는 로커를 제자리에 가져가서 볼트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부서져서 보일러실에 쌓아 둔 책상을 몇 개 고쳤습니다.

얼마 후에는 파티오(스페인식 집의 안뜰)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 바닥으로 된 장소에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 사무실과 고등 평의원 방이 건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꾼들이 매일 조금씩 일을 하였는데 시멘트에 구멍을 뚫고 부스러뜨렸기 때문에 먼지가 일어서 건물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건물 청소를 막 끝내고 나면 일꾼들은 다시 일을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

에 비평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개월 동안이나 이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년 주일 학교 교실에서 청소년 대회를 갖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은 특별히 고쳐야 할 곳이 없는지 묻기도 했으며 특별히 청소해 달라고 부탁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깨끗이 닦았고 문짝이나 계단 등의 나무로 된 부분을 말끔히 씻어 내었고 마룻 바닥을 윤이 나도록 닦았으며 커튼도 깨끗이 빨았습니다. 모든 것은 번쩍번쩍하게 광이 났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나는 에이스 형제에게 그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글쎄, 감독단 보좌 한 사람이 좀더 신경을 써서 의자의 먼지도 닦아 주었으면 좋을뻔했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의자가 더 필요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사장에 있는 의자를 가져 왔던 것입니다. 지적받은 일이 우리가 했던 일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일이었음을 알고 우리는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모르타르(회반죽)를 바른 벽을 전부 씻어 내는 데는 무척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에서 시작하여 큰 홀을 청소한 다음 활동실과 상호부조회실, 고등 평의원실, 그리고 각 교실을 차례대로 청소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난방기구들과 문살과 계단 난간과 현관과 그 밖의 여러 곳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홀과 상호부조회실에 있는 양탄자는 닦았고 얼룩이 젖어서서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에이스 형제는 감독에게 사람을 고용하여 양탄자를 씻어 내게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곧 양탄자를 바꿔 깔 계획이므로 성가시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몇 주일을 기다리다가 에이스 형제는 양탄자 세척기를 빌려서 자신이 양탄자를 썼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건물은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인으로 일한지 2년 후 또 다른 와드가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전부 4개의 와드가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상호부조회가 있어서 직원들은 이른 오전 8시 30분에 도착합니다. 상호부조회실, 현관의 홀, 조리실, 남쪽 계단, 육아실, 화장실 등이 모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상호부조회 모임을 갖는 동안 우리는 나머지 교실과 예배당과 활동실을 청소하였습니다.

오후 3시에는 초등학교 직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호부조회실, 육아실, 조리실, 화장실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청소도 하여야 합니다. 초등학교가 끝나면 우리는 휴지를 줍고 비로 쓸고 의자를 바로 놓고 활동의 밤을 위해서 칠판을 말끔이 닦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일년간이나 계속해 왔습니다. 두 개의 와드가 다른 건물로 이사하자 우리는 휴가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청명한 아침에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 싱크대와 분수전과 기타 금속제품을 닦는 화학 약품을 판매원에게서 샀습니다. 나는 때와 먼지로 뒤덮혀 있는 낡은 전기 스위치를 이 약품으로 닦았습니다.

대여섯 개 가량 닦아 보았는데 결과가 좋았으므로 나는 스위치가 세 개나 달린 낡은 칠판을 닦으려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학 약품으로 닦은 후

젖은 스폰지를 집으려 했을 때 평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았더니 스위치판에서 천정 가까이 이를 정도로 불꽃이 튀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이야! 교회에 불이 났어요!”하고 소리치며 홀 밖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에이스 형제가 홀을 돌아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을 때 불은 이미 꺼졌고 칠판처럼 캄캄하였습니다. 스위치 통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나는 화학 약품과 전기는 뒤섞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는 월요일부터 2주간 휴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에이스 형제는 일요일을 위해 건물을 청소하도록 토요일마다 집에 돌아오자고 했습니다. 나는 휴가도 끝나기 전에 돌아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야, 이곳이 깨끗한지 어떤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주의를 기울인다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릴 리가 없지. 일해놓은걸 눈여겨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문득 나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였습니다. “나는 주의를 기울이지,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내일 손님이 오는데 집이 더럽다고 생각해 봐? 방문객은 어떻게 생각할까? 난 당황하게 될 거야.” 나는 정말 떨렸습니다. 대단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후 결코 다시는 주님의 집을 청소하는 데 보낸 시간을 아까와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으로서 처음 몇 달 동안은 회원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점차 친해짐에 따라



그들의 태도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스 형제는 언제나 적소에 있었고 책상을 정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그는 어린이나 청소년과 친했으며 그가 거기에 있을 때는 언제나 건물 안에서 야구나 농구를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보답으로 큰 현관 홀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고 특히 일요일을 위해 청소를 해 두었을 때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 하였습니다.

일년 남짓 되자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다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과 반원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과일 바구니나 과자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소년들이 마분지와 설탕으로 만든 예수 탄생 광경을 갖다 주었으며 그들은 또한 솔방울과 호두로 만든 화환을 가져 왔습니다.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가 건물을 깨끗하게 손질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그들의 이름이 적힌 아름다운 포스터를 가져 왔습니다.

상호부조회에서는 에이스 형제에게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한번은 스테이크 부장단의 초청을 받아 대회 때 방만한 총 관리 역원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고등평의원과 함께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을 6년간이나 지키다가 지난해 봄에 은퇴하였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웃은 일도 있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한 사람도 만들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였으나 동시에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생애에서 훌륭한 경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

아버지의 집 : 교회 관리인을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수 많은 말일성도 교회 건물들이 세계 도처에 세워졌다. 그 건물들은 예배나 분반 공부나 우리의 사교 활동을 위한 영적인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값진 목적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 매주 여러 시간 동안 이 건물은 교회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여튼 건물을 아름답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회원들은 금전과 시간면에서 희생을 해야 하며 특히 건축을 위해서 상당한 희생을 바쳐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신권 지도자와 관리인과 더불어 건물과 주위 환경을 돌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건물을 돌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1. 수고하는 관리인에게 감사한다. 휴가간 관리인을 대신하여 봉사한 한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회원은 이 일을 한번쯤은 해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관리인이 갖고 있는 고충을 경험한다면 관리인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2. 관리인이 건물 안에서의 활동을 관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는 자신의 임무 수행에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한다. 관리인이 아닌 다른 성인 관리자가 언제나 참석하여야 하며 건물 사용을 지도하고 사용 후 문을 잠그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3. 재정 지원은 건물 운영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각 가족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4. 관리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될 것이다. 긴급한 사항이나 정기적인 계획 사항을 보고하는 것 외에 대표 감독이나 시설 대표를 통해서 특별한 관리상 필요 사항을 요청받게 될 것이다. 계획된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관리인에게 일정표가 주어질 것이다.

5. 건물 열쇠를 갖고 있는 신권 지도자들과 보조 조직 지도자들은 열쇠를 소중히 간직해야 하며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빌려 주거나 복제해서는 안된다. 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문을 잠그는 책임도 그들이 져야 한다.

6. 특별한 행사를 위한 장식으로 촛불이나 등불 그 밖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어떤 종류의 집착성 테이프는 벽의 페인트나 칠을 벗겨 내는 일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7. 화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저장 창고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신권 지도자들과 보조 조직 지도자들은 가연성 물질이 건물내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화덕이나 아궁이가 있는 곳에는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된다.

8. 모든 회원은 비정상적인 일이나 이상한 냄새가 건물 안팎에서 일어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우터 고장, 난로 파열, 건물 파괴 따위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9. 건물에 대한 봉사 계획은 최소의 비용으로 일을 완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유지에 대한 노력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다. 봉사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해 일하여 건물이 더 나아 보이도록 해야 한다.

10. 물자 절약을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기불과 마이크 스위치를 끄도록 한다. 냉방 시설이나 난방 시설을 가동시킬 때는 창문을 꼭 닫아 두어야 한다. 물자를 절약하게 되면 비용이 절약된다. 물자와 경비의 절약은 모든 교회 회원의 공통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건물과 대지는 주님의 것이다. 그것들은 헌납할 때 주님께 바친 것이며 회원들은 주님의 손님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 건물 속에 주님의 영이 언제나 거할 수 있도록 건물과 대지를 깨끗하게 하고 보기 좋게 손질해야 한다.

이런 원리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가르쳐져야 하며 집회소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가르쳐져야 한다.

우리는 많은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갖는 축복을 받았으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건물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집의 신성함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현재 사용 중인 건물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 *

학습이란 씨앗과 같아서

데오 이 맥킨

몇 주 전 우리 가족은 채소밭을 가꾸었읍니다. 나는 할 일을 지시하였고 나의 아들들이 대부분의 작업을 맡아 하였습니다.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나의 부친께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 알지 못했으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우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나의 손자와 손녀를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음을 가르치는 교사인 우리는 우리의 자녀나 학생에게 일을 시킬 때 우리 자신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행할 가장 보람있는 일의 하나는 그들에게 부음을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개인의 간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간증을 얻어야 합니다.”(보이드 케이 팩커,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208페이지, 이 주제에 관한 참고 자료, 성도의 빛, 1976년 4월호, 21페이지 참조)

학생의 노력

우리가 진리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치며 해석하고 훈계하여 진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간증을 얻으려 한다면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앨 34 : 37) 그들은 경전을 읽어야 하며(앨 33 : 14), 곰곰이 생각해야 하며(힐 10 : 2-3), 구하여야 하고(니이 32 : 7), 힘

써(딤후 2 : 15)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은 구해야 하고(니이 4 : 35), 찾아야 하며(신 4 : 29), 두드려야(니삼 27 : 29) 합니다.

그들은 또한 알기를 원해야 하고(니일 11 : 1), 간구해야 하며(교성 6 : 11), 생각해야 하고(빌 4 : 8), 글을 써야(교성 69 : 8)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됨으로써(약 1 : 22) 자신의 일을 수행해야(앨 34 : 32) 합니다.

교사로서 우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위에 열거한 것처럼 스스로 노력하도록 인도해 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도표, “교사/학생의 관계”,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28페이지 참조)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준다면 그는 하루 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평생 동안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의 준비

다른 사람들에게 학습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들로 하여금 공부하고 싶은 욕망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행하기를 바라는 모든 일을 직접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참여하게 해주는 공과 전개 방법은 물론 학습 활동도 준비해야 합니다.

채소밭을 가꾸기 위해서 나는 중요한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해도 괜찮다”라든가 “하지 말라”는 말로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깽이를 집어서 이렇게 잡아라.(그들에게 보여 주면서) 다음에는 깽이로 흙을 파라. 이쯤 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될 거야.”

나는 그들에게 작업 도구를 준비해 주었

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그들에게 몇 개의 좋은 씨앗을 준 사실이었습니다. 씨앗이란 경전에 나와 있는 씨와 여러 면에서 매우 흡사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란 말씀으로써 그의 주제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학생이 복음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영감에 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 13 : 3-23 참조)

엘마도 이와 똑같은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이제 말씀을 씨에 비유하려 하노라.”(엘 32 : 28)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각 자녀의 손에 몇 개의 씨앗을 놓아 주고는 더욱 자세히 그 씨앗들을 살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빨 크기만한 작은 옥수수 낱알로 그들이 충분히 식사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양의 옥수수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는대거나 손에 씨앗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어야 합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을 잇고 있습니다. “너희가 씨앗 하나를 너희 마음에 심었다고 하여 그것이 참된 씨, 곧 좋은 씨이며 너희의 불신앙으로 이를 던져 버려 주의 영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면, 보라 씨앗은 너희 가슴 속에 부풀어 오르리니, 너희가 이 부풀어 오름을 느낄 때에 이제 이 씨앗이 나의 영혼을 키우며 나의 이해를 밝혀 주며 참으로 내게 감사함을 주기 시작했으니, 이 씨앗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임에 틀림없느니라고 너희가 너희들 자신에게 말하리라.”(엘 32 : 28)

수확에 대한 믿음

나의 자녀들은 신선한 채소의 맛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기뻐하며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씨앗을 심어 봅시다.” “씨앗이 자라려면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릴까요.” “내일이면 다

자라게 될까요?”

엘마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 영혼을 부풀게 하고 싹이 났음을 너희가 알았고, 너희의 이해가 밝혀졌고 마음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너희가 이제 이 뜻을 아노라...”

“...보라 이 빛의 의미를 발견하였다 함이 곧 너희의 지식이 완전하다는 것을 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다. 이제 너희는 신앙을 버려 두지 않아야 하나니...너희의 신앙을 시험하여 씨앗을 심은 본 것에 불과하나라.

“보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며, 너희가 힘써 이 나무를 가꾸어 뿌리를 뺄게 하고, 크게 자라 우리를 위해 열매를 맺게 하자 하리니, 보라 너희가 열심히 이 나무를 가꾸면 뿌리를 뺀고 크게 자라 열매를 맺으려니와”(엘마서 32 : 34-37)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일에 참여하였고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견딜

나는 자녀들에게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시작한 좋은 일은 날마다 주일마다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나는 그 밖의 어떤 참된 원리를 전하고, 가르치며, 설교하고, 말하는(또는 다른 말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것이 매우 적절하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채소밭이든 교실이든 어디에서나 성장이란 오랜 시일이 걸리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결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내가 권고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 는 안돼.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려야 해. 너희는 거름을 주고 물도 주어야 한단다. 씨앗을 심은 주변의 흙을 파헤쳐 비옥하고 잘 가꾸 땅이 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늘에서 낮잠 자기 쉬운 무더운 여름날에 부지런히 일해

야 한다. 너희의 신앙이 다른 흥미있는 일과 욕망에도 아랑곳 없이 너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하도록 해줄 것이다. 너희는 불과 몇 분 전에 너희의 손에 놓여 있던 작은 씨앗의 무한한 가능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엘마는 자신이 말한 씨앗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잘 간직하면 이는 너희가 나무를 가꾸고 같아서 나무의 열매를 바라는 너희의 신앙과 부지런함으로 자라기 시작하여 뿌리를 뿌리니, 영생으로 뻗어 오르는 나무가 되리라.”(엡 32 : 41)

엘마는 또한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나무를 소홀히 생각하여 잘 가꾸지 아니하면, 보라 나무는 뿌리를 뻗지 못하여 햇빛이 비치 마름에 뿌리가 없는 이 나무는 시들어 버릴 것이요, 너희는 이를 뽑아 던질 것이다.

“이는 씨앗이 나쁘거나 열매가 탐스럽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의 토지가 메마르고 너희가 나무를 가꾸지 아니한 때문이다. 그 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하느니라.”(엡 32 : 38-39)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심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나 자녀에게 좋은 씨앗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과 연구와 기도도 그 씨앗을 잘 가꾸고 보살피도록 가르친 후에 우리는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한 바울의 말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

간접 경험의 가치

필립 시 스미스

하와이 교회 대학 교육과 부교수

만일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선택할 경우, 우리는 가장 중대한 경험을 하

게 된다. 예를 들면, 식견있는 어머니는 죄장을 갖기보다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택하려 하며, 청소년은 긍정적이고 고상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인생의 어두운 면을 따르고 싶은 유혹을 극복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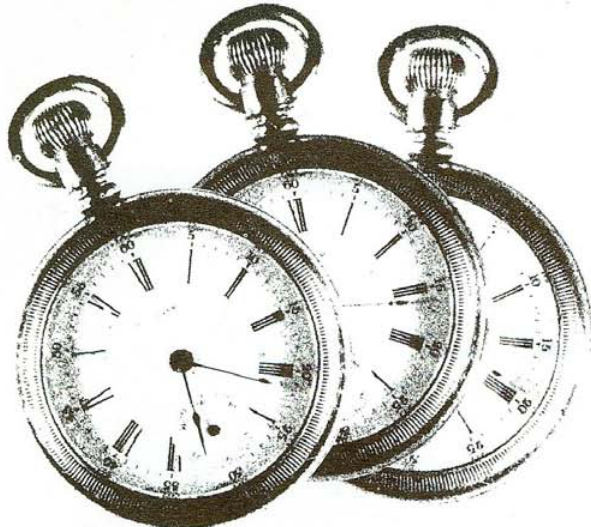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접 경험으로는 의미심장한 이해력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직 가난한 사람만이 가난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오직 죄인만이 죄의 본성이 무엇이며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그들은 한다. 그들은 직접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주장에는 적어도 두 가지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 첫째, 죄를 이해하기 위하여 또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죄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일에 우리 자신이 빠져들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마약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마약의 노예로 만들기 쉬운 것이다.

둘째로, 그 주장은, 성신이 그와 같은 이해력을 주신다는 사실과, 인간은 감정 이입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와 같이 죄가 남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일이 없으시지만 죄인보다 죄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신다. 예언자들은 죄의 결과를 예리하게 주시하시는 분이시며 따라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력을 발휘하신다.

우리가 감정 이입에 의하여 영적으로 인도 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도 죄의 본성에 대해 보다 더 잘 알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게 될 때 오직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론을 제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브렌다 힌트

젊은 감독이 설교단으로 천천히 걸
어갈 때 성찬식의 정적은 계속되
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회중 가운데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
갔다. 어떤 사람은 높게, 어떤 사람은
낮게, 어떤 사람은 단지 손가락만 올리
기도 했다. 몇몇 사람은 그들의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가만히 있었다. “좋습
니다. 손을 내리십시오.”하고 감독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
나 많은 자들이 가장 완전한 날을 보내
기를 원하십니까?”

또다시 손이 올라갔다.

“래리 형제님도 완전한 날을 보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좀 나와 주
시겠습니까? 진, 라래, 디앤, 신, 테
스, 존, 린 마이크씨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각자의 이름 사이를 약간씩 메고 그

들의 이름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불리어
졌다. 어떤 사람의 손은 약간 내려갔고
어떤 사람의 손은 그들의 무릎 위에 떨
어졌다. 단지 몇몇 사람만이 높이 손을
쳐들고 있었다.

“여기에는 완전한 날을 보내기를 원
하는 한 미망인이 있습니다.” 감독이 미
망인과 연세가 많은 자들로 가득 찬 회
중을 훑어보았을 때 잠시 정적이 감돌
았다. “비비안 자매님, 자매님은 완전
한 날을 보내고 싶습니까?”

그때 감독은 자기 뒤 단상에 앉아 있
는 자들을 향해 “자, 여러분은 언제 여
러분의 완전한 날을 갖고 싶습니까?
화요일입니까?”

충격과, 의혹과 당황 때문에 아무도
선뜻 약속을 하려고 들지 않았다. 몇몇
사람만이 승락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
덕이고 있었다. 그 외 사람들은 꼼짝
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비로소 어떤 사

람이 목요일로 제안했다. 목요일까지는 며칠 더 남아 있으므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좀더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목요일로 결정되었다.

감독은 눈을 깜박이면서 “좋습니다. 목요일에 여러분이 완전한 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일요일 성찬식에서 여러분의 완전한 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그는 다시 회중을 향하여 “완전한 날을 보내기를 원하는 또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얼굴에 죽은게가 많고 호감을 주는 미소를 띤 젊은 아론 신권 교사인 제임즈가 손을 들었다. 그도 거기에 포함되었다.

“목요일에 이 열한 사람이 완전한 날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감독은 계속해서 회중을 향하여 말씀을 하였다. 워드 회원으로서 여러분의 책임은 그들이 그 약속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 하루를 완전한 날로 삼아야 하는가? 그날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워드 회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완전한 날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보고를 몹시 듣고 싶어하였다.

드디어 일요일이 되었다.

비비안은 짧은 갈색 머리와 빛나는 눈을 지닌 키가 큰 미망인이다. 평소에 그녀는 모임 때 말없이 앉아 있곤 하였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신전에 들어가서 그녀의 날을 시작할 결심을 했다. 그리고 그녀가 항상 계획했던 일들을 행하려고 했지만 결코 성취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녀의 날은 그녀가 계획했던 것과는 꼭 맞아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심한 감

기에 다시 걸렸다. 3년 반 전에 감기로 고생한 이래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행동 계획을 생각해야 했다.

어머니의 오래 된 서류들은 대부분 그녀의 집에 있는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생의 기록을 위해 스크랩북을 만드는 데 몇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혼자서 그것을 만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생을 불렀습니다. 또한 나는 플라스틱으로 된 책표지를 샀습니다.”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일생 기록을 사진과 글로 편집하였다. 이것을 작성하는 데 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스크랩북이 만들어졌다.

완전한 날에 행한 활동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 주었다.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가족의 제보를 위해 일하게 되리라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제보가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제보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질 수조차 없었습니다.”라고 그녀는 고백했다. “나의 어머니의 기록을 다 정리한 후에 나는 나의 남편을 위해 이와 같은 책을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남편과, 아들과 딸의 역사를 편집했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보관해 오던 귀중품과 기념품과 유물이 든 오래 된 상자를 꺼내어 정리하면서 나는 조상을 위한 신전 사업을 행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찾아 내었습니다. 나의 이 일이 아직 시초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는 기뻐합니다.”

그녀의 생은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으며 그녀는 행복에 차 있었다.

신은 15세 되는 유모어 감각이 있는 생기와 기쁨에 찬 적극적인 성격의 소년이었다. 그는 완전한 날에 대하여 진지하게 도전을 했다. 경전 연구는 그의 일상적인 일과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날에 경전을 읽기를 원했다. “나는 왜 그날에 경전을 읽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전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라고 신은 말했다. “수요일 밤에 나는 자주 잠을 깬습니다. 나는 너무 잠을 많이 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나의 자명종 시계가 6시를 알렸습니다. 나는 그후 잠깐 동안 누워 있다가 정신을 차려 경전을 집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약 45분간 읽은 후에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하루를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언제나 학교 친구와 교사와 가족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완전한 날에도 이것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날은 때때로 너무 어려웠으며 나는 몇 가지 실수를 범하기도 했으나 보통 날보다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해냈습니다.

“경전을 읽음으로써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또 하나의 일은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나는 하루 종일 내가 더욱 완전해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보다 완전해지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그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대답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제임즈도 이러한 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도와 주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장 부적절한 때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것은 텔레비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쇼를 보고 있을 때나, 가장 흥미있는 대목을 읽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부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을 때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부탁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목요일에 그가 해야 할 목표는 부탁받은 일은 기꺼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기에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일을 멈추고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물어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다갈 무렵 나는 즉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훌륭한 느낌을 주었습니다.”라고 그는 결론적으로 말을 끝마쳤다.

존과 테스는 많은 이웃을 방문했던 일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일을 한 주일 더 연장할 결심을 했다.

“감독으로부터 그러한 지명을 받자마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이것에 관해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좀더 자세히 계획하고 기도했습니다.”라고 존은 그때를 회상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계속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목요일에는 최선을 다해 생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테스는 말했다.

그들은 이웃을 방문하는 그들의 날을 충실히 이행할 결심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약간의 과일이나 선물을 들고 병자를 방문하고 또한 그들을 도왔던 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외로워서 단지 이야기만을 나누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와드 우정 증진 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존이 말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방문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리고자 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터놓고 우리들을 환영하는가를 알면 놀라실 것입니다. 한 자매는 우리에게 대제사가 종종 찾아와서 성찬을 집행해 줄 수 없겠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독과 이것에 관해서 상의했고 다음 주일 우리 두 사람은 그녀를 위해 성찬을 집행했습니다.”

그들의 날은 성공적이었는가?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나날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테스가 말했다.

디앤은 친구에게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에게도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라고 그녀는 그날에 두 오빠와 언니에게 말했다. 후에 그 일을 회상하면서 웃음을 짓고 있을 때, 그녀의 눈은 반짝이었고 그녀의 금발머리는 유난히

도 빛났다. “나의 오빠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꾸 ‘무슨 일이지?’라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만일 완전한 날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의 삶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받은 많은 축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감사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오빠에게 그와 같은 전화를 하자 그후 나의 오빠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단지 내가 잘 있는지 알고 싶어 전화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집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한 해가 다 지나가도 한 번도 그러한 전화를 걸어 온 적이 없었습니다.”

린은 그녀에게 있었던 다른 경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훌륭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먼저 팬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교반기를 사용해서 팬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반죽을 휘젓기 시작했는데 조금 심하게 휘저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반죽이 아무데나 마구 튀었습니다. 찬장과 마루와 나에게도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나의 아들을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도 작은 팬케이크 반죽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두 눈은 놀라서 동근해졌습니다. 내가 그를 내려다보았을 때,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에는 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곧 여동생을 그날 아침에 직장으로 태워다 줄 수 있겠느냐고 묻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

다. 나는 꼬마에게 옷을 따뜻하게 입히고 자동차의 시동을 건 후 어머니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내가 거기에 도착하였을 때, 여동생은 다른 차를 타고 직장으로 가버렸습니다. 나는 또다시 그러한 상황에 화를 내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들은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완전한 날을 보내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완전한 날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라고 진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에 관해서 진실로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계속해서 이러한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에는 완전한 날을 보내기 위해 노력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제언은 나에게 다소 두려움마저 주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날을 10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킨 완전한 날은 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보통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내가 적어도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자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러한 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그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나의 생애에 있어서 내가 주님과 참으로 가까이 있다고 느꼈던 이러한 시간들은 나의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경전을 연구하는 시간이었습니

다. 나의 완전한 날에 나의 생각이 종잡을 수 없게 됨을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수년 동안 나의 머리 속에 축적됐던 온갖 잡념들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나는 훌륭한 일 즉 완전한 날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살려는 시도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을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생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는 전에 완전한 날을 가지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종종 완전한 날에 관해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일을 꼭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라래는 진의 부인이며 또한 10대의 자녀를 둘 가진 어머니이다. 그녀는 흔히 저녁 무렵에는 피로를 느끼곤 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날에는 매우 원기가 왕성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많은 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부언했다. “하루를 완전하게 보내려고 노력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버릇의 일부를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찮은 일에도 진에게 화를 잘 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버릇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러한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결점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단계를 취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겪었던 그러한 일이었다. 래리는 완전한 주일 갖기 운동에 참가했으며 또한 그의 선교사의 생활에서 이러한 날을 가졌다. “많은 귀환 선교사와 같이 나는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해야 할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독으로부터 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느꼈던 주님과 친밀감을 되찾아야 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니다. 나는 아픈 사랑니를 뽑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나의 날이 실책하였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니다.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전하게 살기 위하여 양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일상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매우 중대한 몇 가지 일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독은 와드 회원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되었는가?

“나는 언제나 완전한 날을 보내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날에는 많은 외부의 영향과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영적이고 이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날, 즉 완전한 삶을 보내기란 불가능하다고 흔히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간증을 갖고 있을 동안에는 이때가 회원들이 완전한 날을 위해 노력할 가장 알맞은 때라는 강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날을 완전한 날로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그렇게 하라고 부탁받은 일도 없습니다. 내가 신전 추천 접견을 가졌을 때 여러 번 사람들은 완전한 그들의 생각을 토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와드의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경험은 와드 회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와드 회원으로서 그 결과에 대하여 참으로 관심이 컸다. 감독은 회

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희망과 꿈과 관심을 가진 참된 성도가 되었다.

나 자신의 생은 보다 풍요로워지고 완전해졌다. 나는 자신이 완전해져야 할 목표의 필요성을 보다 잘 깨닫고 이러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와드의 대부분의 회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했던 자들은 모두 그가 이제까지 소홀히 해왔던 일을 부지런히 행해야 하겠다는 결의를 갖게 되었고 해로운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결의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완전케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 즉 기도, 경전 연구, 타인에 대한 봉사,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게 하는 일 등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 세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심한 감기, 치통, 기타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는 일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인내심을 갖게 하고 사려깊은 자기 통제를 발휘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서 이것을 준수했던 자들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즉시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여전히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

질의 응답



아데스 지 캡

본부 청녀 회장단 제 2보좌

“신전에 다녀온 자매들에게는 소매가 달린 긴 복장을 착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왜 신전에 다녀오지 않은 자매에게는 이와 똑같은 복장 표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신전에 다녀온 사람이거나 다녀오지 않은 사람을 막론하고 어떤 일정한 복장 표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신전에서 의식을 받은 후에 주어지는 책임인 것입니다. 신전 가먼트를 착용하는 특권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성스러운 책임인 것입니다. 먼저 아직 이러한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선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림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내가 신전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놀랍게도 신전을 방문하는 것은 내가 새삼스럽게 시작해야 할 어떤 많은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평소에 훈련하고 준비하고 지난날의 생활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게 된 어떤 일을 경험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약간 고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때를 회상할 때 신전으로 가는 것은 마치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친밀한 일임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복장이나 습관이나 태도나 행동을 고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견입니다만 만약 여러분의 복장을 고칠 필요가 없거나 여러분이 신전에 간 후에도 중전과 같은 복장을 착용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신전 의식을 받은 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안전한 표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자주 어린 소녀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합

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언제 복장을 들추어 그들의 취향을 다시 바로잡고 혼련시키려고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때 목인해 버렸던 새로운 표준을 새삼스럽게 다시 가르칠 수 있었습니까? 만일 첫번째의 표준이 훗날의 보다 엄격한 표준에 비해서 인기가 좋다 하더라도 첫번째의 요소는 말할 수 없이 위험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복장에 있어서 합당한 표준을 받아들인다면 후에 아무런 수정도 없이 신전 가먼트를 착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결정에 달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로 심판대에 서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복장 표준에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스키복을 입는 자나, 수영복 또는 예복을 착용하는 자들의 가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평상복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매일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지켜 보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제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신전에서 의식을 받은 자들의 책임에 관한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을 때 개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덕과 순결의 법을 엄격히 지키고... 모든 성약을 맺고 책임을 받아들이면, 조건을 충실히 준수함으로써 축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진다.”(제임스 이 탈매지, 주님의 집, 북크래프트사, 73페이지)

이것은 약속의 이해이며 겸양의 표준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자신의 성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신전 엔다우먼트를 받아들도록 택함을 받거나 또한 품위있는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그것에 수반되는 축복을 받도록 택함을 받은 후에는 가먼트를 착용할 몸의 일부를 지키는 책임은 이전과는 달리 더욱 중요해집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 우리는 단정하고 합당한 복장을 착용하라는 권고를 받아 왔습니다. 여러분이 신전에 다녀왔든 아직 다녀오지 않았든 간에 복장 표준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사로써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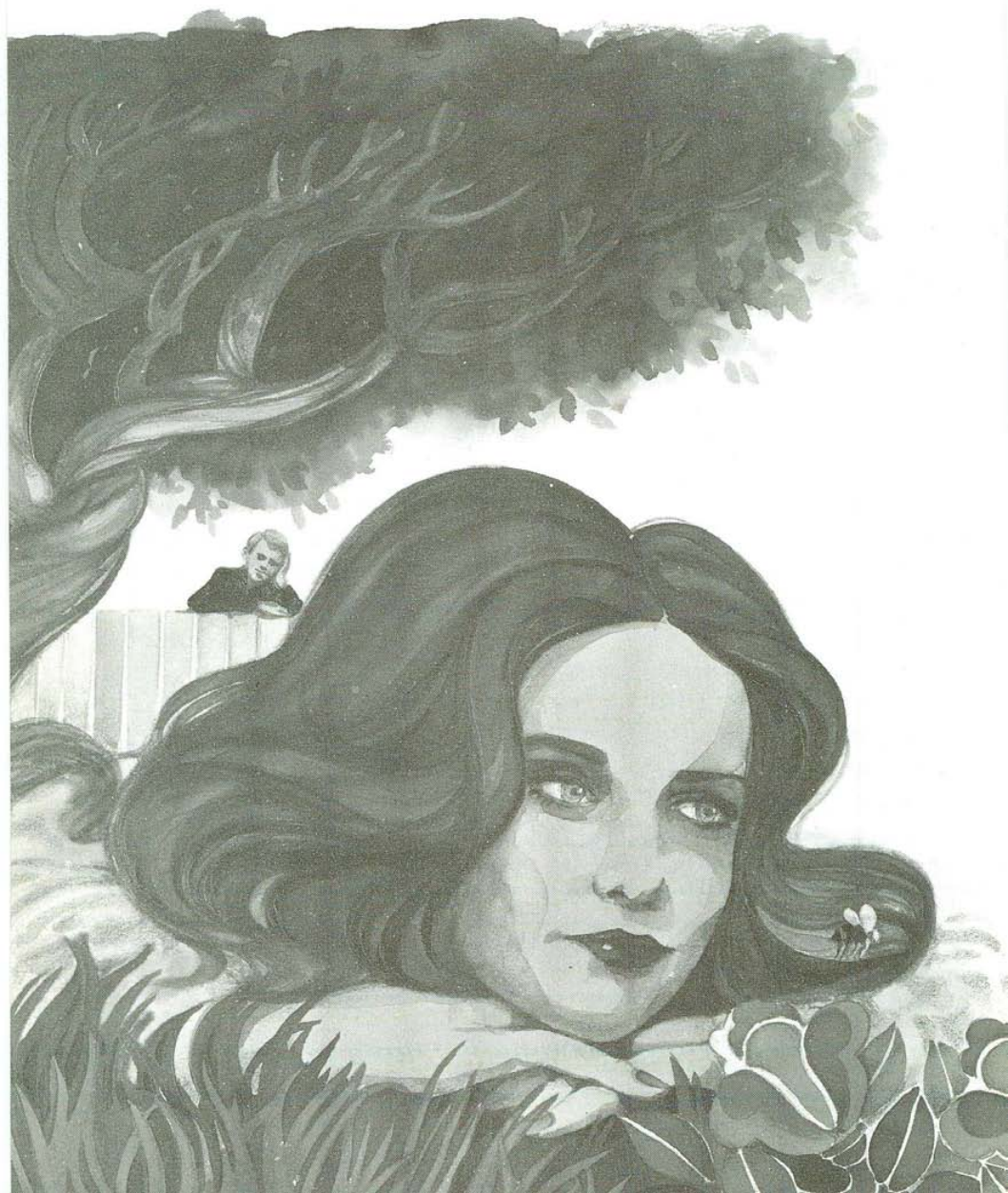
“그러나 명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여 명령을 받아 마지못해 이를 준행하는 자는 정죄를 받느니라.”(교리와 성약 58 : 27-29) *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 의사로써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창작)

초여름의 꽃들

잭 와이 런던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녀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수줍어하는 꽃봉오리가 열리는 그러한 우아함을 아직 눈치채지 못할 만큼 어렸었다. 그런데 17세 3개월이 되는 꽃다운 나이로 이름도 모를 병으로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그 청년은 18세였고 그녀의 친구였다. 그들은 사실 데이트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그 청년이 그녀를 심각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녀가 너무 어린 것같이 항상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둘다 몬타나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동쪽에는 대초원이 펼쳐져 있었으며 서쪽에는 산맥이 뻗어 있었다.

고등 학교에는 말일성도 학생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데이브와 캐시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 새벽반에 함께 다녔다. 매일 아침 5시에 데이브는 자명종 시계 소리에 잠을 깨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빨리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캐시를 태우러 차를 몰고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마침내 한 손에는 책과 핸드백과 토스트 조각을 들고 다른 손에는 머리카락과 빗저고리를 움켜쥐고 급히 뛰어나왔다.

4월 어느 날 저녁, 캐시의 어머니는 데이브에게 다음과 같은 전화를 하였다. “캐시는 내일 학교에 갈 수 없단다. 그러니 내일 아침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가기 위해 차를 몰고올 필요가 없다. 그 애는 몹시 아프단다”

그것이 시초였다.

데이브는 그해 5월에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6월에 장로로 성임되었다. 그는 선교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일이 끝나면 매일

그는 그녀를 찾아갔다. 어느 날 그는 그녀가 뒷뜰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 집의 뒷뜰은 전에는 온통 잔디로 깔려 있었으나 해가 감에 따라 채소밭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스페인식으로 지어진 그녀의 집의 안뜰 앞에 잔디밭이 조금 남아 있을 뿐 모두 채소밭으로 변해 버렸다. 채소를 가꾸어야 하기 때문에 잔디밭은 없어질 위기에 처하였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꽃밭이 조금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느 날 그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캐시는 잔디밭에 누워 두 손으로 턱을 괴고 꽃밭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는 몇 마리의 꿀벌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데이브는 문간에서 걸음을 멈추고 몰래 그녀를 지켜 보고 있었다. 그녀는 청색 작업복 바지와 서부식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최근에 방문한 이래로 그녀의 긴 머리는 시원하게 짧게 손질되어 있었다.

그가 대문으로 들어섰을 때, 캐시는 일어나 앉았다.

“나도 하루 종일 꽃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지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 하고 그는 그녀를 놀려 댔다.

그녀는 일어나서 달려왔다.

“누가 너의 머리를 잘라 주었니?” 하고 그는 물었다.

“엄마가, 마음에 드니?”

“아주 좋은데.”

그들은 흥당무랑 상치랑 토마토가 자라고 있는 밭머리를 따라 함께 걸었다.

“어제 저녁 데이트했니?” 하고 그녀가 물었다.

“그래, 케어런과 함께 데이트했지. 베이비 골프를 치며 놀았어”

“그 애를 좋아하니?”

“글쎄, 그러나 그녀는 좋은 애야, 난

4개월 후에 선교사로 나가야할 텐데 지금 어떤 애를 사귀는 것은 난처한 일이야. 아마 그녀는 나에게 편지는 할꺼야.”

그는 집 옆의 울타리에 감겨 있는 덩굴에서 꽃을 하나 따서 그녀에게 주었다.

“넌 나에게 편지할래?”

“넌 어떤 편지를 원하니? ‘사랑하는 데이브 장로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고향에 있는 우리들 자매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하루하루를 환심으로 지새우며 보내고 있습니다.’ 어때?”

“그것 좋은데.”하고 그는 씩 웃었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다음과 같이 인쇄된 편지를 보내지.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 500명에게 칩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만큼 자랄 때까지 난 겸손하게 생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내가 선교사로 나와 있을 동안 아무와도 테이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하고 그녀는 물었다.

“그렇지는 않겠지.”라고 데이브는 대답했다. “데이브”하고 그녀는 갑자기 심각하게 불렀다. “너는 훌륭한 선교사가 될 거야. 너는 구세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올바른 대표자가 될 거야.”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들은 안뜰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아서 정원에 있는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어. 나는 구세주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이 성구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알겠니?”

“그것은 내가 신학 연구원 중등부를

마칠 때 성구 찾기에서 나온 것 같애.”하고 그는 말했다.

“좋아, 이제 너에게 묻지 않겠어.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야. 나는 생각할 때, 마음속에 영상을 그리거든, 그것에 관해서 말해 주겠어.”

그녀는 그가 쥐어 준 꽃을 양손에 들고 그것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이른 아침이었어. 갈릴리 바다에는 아직 안개가 자욱했어. 어떤 외로운 분이 조그마한 어촌에서 떨어진 호젓한 길을 걷고 있었어. 그분은 바로 구세주셨지. 그는 바다에서 떨어진 언덕길을 걸으면서 야생의 꽃들이 피어 있는 곳으로 가셨어. 주님은 더 자세히 보시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어. 그분은 꽃잎을 만지셨어. 주님은 꽃의 안쪽을 살피기 위해 고개를 숙이셨어. 나의 질문은 그분은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야.”

“꽃이지.”

“그것이 전부야, 그저 꽃이야?”

“그 외에 그분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예수께서는 이 지상을 창조하라는 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 한때는 그분은 그 꽃의 모든 부분이 있게된 목적을 알고 계셨어. 그분은 이러한 세부적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의 위대하신 지력으로 유심히 관찰하심으로써 그 꽃의 각 부분의 기능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것이 나의 의문이야.”

“나는 그것에 대해 무어라고 답할 수 없군.”

“나도 역시 답할 수 없어.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이 평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여겨져. 그분은 해가 질 때

저녁놀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시었어. 특히 해뜰 때와 비가 내릴 때의 갈릴리 바다의 경치를 좋아하셨지. 그분은 미에 관해 감수성이 예민하셨다고 생각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분은 우리가 백합화를 보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그것들을 관찰하셨다고 생각해.”

그녀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왔다. 문으로 들어오면서 정원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그는 말이 없고 조용한 분이었으며 정돈되고 잘 가꾼 채소밭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분이였다. 그는 일을 할 때는 끝잘 알 수 없는 곡조로 휘파람을 불곤 했다.

그는 딸기 여섯 개를 따서 물에 잘 씻어 데이브와 캐시에게 맛보라고 갖다 주었다.

“훌륭한 딸기가 될 거야, 그렇지?”하고 물었다.

6월이 되어 캐시는 대학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더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는 전문의의 진단 결과를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여름이 지나자 데이브는 그녀가 서서히 악화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누워 있었다. 때때로 데이브는 그녀를 방문했다가 그녀가 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단 일 분도 머무르지 못하고 돌아오곤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데이브를 만나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그녀는 이야기를 나눌 만큼 건강이 좋아졌다.

한번은 캐시가 데이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데이브야, 너의 선교사 부름을 위한 한 성구를 찾아 냈어.” 그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성구 사전을 집어 그 성구를 찾아 큰소리로 읽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교성 4:2)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녀는 질문했다.

“너는 나를 훌륭한 선교사로 만들 작정이구나, 그렇지?”하고 그는 물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아, 나는 너를 도왔으면 좋을 텐데.”

“그는 그녀의 표정을 보기 위해 쳐다 보았다.

“나는 알고 있어, 나는 곧 죽을 거야.”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의사의 진찰을 받기 위해 수천 마일을 여행했어. 이틀 후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 나의 부모는 그 결과에 관해 아무말도 하지 않으셨어. 그들은 그것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을 거야. 아빠는 나에게 캘리포니아로 휴양 가지 않겠느냐고 했어. 아빠는 우리 모두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그의 생명 보험에서 돈을 인출하기를 바라고 계셔. 우리는 전에 그와 같은 큰 휴가는 가져본 적이 없어. 나의 부모들이 내 방에 오셨을 때는 그렇게 유쾌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어제 엄마가 안방에서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 가장 나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의논할 수 없다는 것이야. 우리는 마치 그것이 구명뗏목인 양 일기에 대해서만 20분 동안 이야기했어.”

바로 그때 그녀의 어머니는 다른 화병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캐시의 침실은 화분과 친구들이 보내온 꽃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 된 꽃을 두 개의 화병에 꽂아 방에 두었다.

캐시는 말을 계속했다. “데이브야, 나는 너하고 말하고 싶어. 네가 필요해, 나는 부모들과는 아직 아무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속의 생각을 규명시키고 나의 두려움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거기에는 틀림없이 한계가 있을 거야.”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그녀가 자신의 장래에 직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쓸 때 그는 주로 듣기만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오래 살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축복도 부인하지 않으시리라는 사실을 난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이 지상을 떠나기가 싫어. 나는 여기가 좋아.”

데이브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데이브야, 너는 나에게 신권 축복을 줄 수 있겠니?”

“너의 아빠가 주시지 않았어?”

“아빠는 이미 나에게 안수를 해주셨어. 나는 신권 축복이 필요해. 그래야 나는 그것에 직면할 수 있고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애.”

“그러면 감독님을 모시고 올께.”하고 그는 가냘프게 말했다.

“아니야, 너는 필요한 모든 신권을 지니고 있어. 네가 나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래.”

“나는 한 번도 신권 축복을 주어 본 적이 없어.”

“그것은 오늘 필요한 것은 아니야.”라고 그녀는 말했다.

“내가 너의 아빠나 감독에게 그것을 말하기를 꺼려 하니? 그들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어.”

일요일 오후. 그는 준비되었다. 그는 이를 동안 경전을 읽었다. 그는 캐시의 아버지와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그들의 협조를 구했다. 그들은 그에게 캐시의 특별한 부탁을 들어주라고 했다. 그는 토요일 아침부터 금식 기도를 했다.

그가 캐시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침실의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뒤에 섰다. 그 방은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 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 위에 가볍게 그의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다. “캐스린 에드몬드여, 나는 내가 가진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으로 그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대에게 신권의 축복을 주노라...” 기도는 자연스럽게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위로를 받으며 그녀의 아버지에게 건강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 축복이 끝났을 때, 그들은 모두 평안함을 느꼈으며, 그는 그녀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고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대화를 나누었다.

월요일 오후 그가 다시 방문했을 때, 그녀는 바깥에 있는 안락 의자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좀더 오래 밖에 있을 수 있도록 별을 막기 위해 지붕에 차양을 달고 있었다.

“아빠” 그녀는 말했다. “내 방에 있는 화분을 여기로 내주시겠어요? 그 꽃들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정원에서 함께 자라기를 원해요.”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하고 아버지는 대답했다. “이제 그것에 싫증이 났

칭찬할 만한 일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평의회

1974년 12월 10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하신 말씀.

몇몇 교회 회원들은 개인적인 행동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을 때 여기에 생각해 볼 만한 또 다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청지기 직분에 대한 원리입니다. 왕국이 커감에 따라 더 많은 책임들이 위임되어지고 많은 청지기 직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청지기 직분을 받아들이는 데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책임을 감당할 것을 배우도록 끈기있게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충분히 긴 bat출과 시간을 주시어 인간이 그 줄을 타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이 강하시기 때문에 청지기 직분을 맡고 있는 인간의 나약한 팔로써는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천천히 쪼는 방아간과 같으나 가루를 곱게 빵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복음의 그물은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 가장 뛰어난 자에게나 가장 나쁜 자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악마는 왕국을 파괴시킬 목적으로 그의 추종자들을 왕국에 내보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 있으며 미구에 그 숫자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선한 자들은 높임을 받을 것이고 악한 자들은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만일 왕국 안에서 우리에게 방해되는 일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 우선 그 문제가 청지기 직분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내어야만 합니다. 그후에 우리는 관련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만일 일의 성질상 보다 높은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해 해결되어질 것으로 생각되면 우리는 온당한 방법으로 적정 수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틀림없이 배도하게 됨을 뜻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왕국을 고수하는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사인 그의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도록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된 곳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집회에 참석하며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부름을 받아들이며 신전 추천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

